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3. 5. 26(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미 주

- 美 대법원, SNS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 면책권 인정
 - 5.18 언론은 미국 대법원이 '트위터 對 탐네'사건 및 '곤살레스 對 구글 LLC' 사건에 대해 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은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권을 인정했다고 보도
 - ※ 유족들은 해당 SNS업체들이 테러단체 ISIS의 콘텐츠를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으며, 이는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
- 美, 펜실베니아 하원에서 '총기규제' 법안 추진
 - 5.23 외신은 美 펜실베니아 하원에서 총격사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판사가 일시적으로 총기 압수를 명령할 수 있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
 - ※ 공화당은 "동법안들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반대 입장

유럽

- 튀르키예, 북서부에서 테러 용의자 5명 체포
 - 5.19 외신은 튀르키예 북서부 에디르네지방의 군사 제한구역에서 불법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의 2명 포함 테러 용의자 5명이 체포됐다고 보도
 - * 터키 남동부 지역에 쿠르드族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극좌·민족분리주의 성향의 테러조직 / 테러단체 지정 : 미국('97.10), 영국('01.3), EU·호주('05.12)

아·태평양

- 아프간 탈레반, 1년 8개월 만에 정부수반 교체
 - 5.18 언론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쿱즈자다」 명령에 따라 「몰로이 압둘 카비르」를 총리 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재집권 1년 8개월 만에 정부 수반을 교체했다고 보도
 - ※ 전문가들은 새 총리 대행이 임명됐지만 탈레반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

○ 인도, 분쟁지 카슈미르서 G20 행사 개최

- 5.22 언론은 인도가 오는 24일까지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인 카슈미르에서 G20 관광 실무단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파키스탄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번 행사에 불참하며 인도를 견제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보도
- ※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자 영유권을 주장, 주민 시위와 테러 빈발

중 동

○ 이스라엘,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한 해상테러 악화 주장

- 5.22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업용 선박을 해상 테러기지로 이용, 미사일 발사 및 드론·특공대 전개에 사용하며 페르시아灣과 아라비아海 등지에서 해상테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 최근 兩國은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와 이스라엘간 충돌로 긴장 고조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軍, 북동부에서 보코하람 테러범 26명 사살

- 5.19 외신은 나이지리아軍이 지난 18일 북동부에서 보코하람 및 이슬람국가西아프리카지부(ISWAP) 소속 테러범 26명을 사살하고 同단체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25명을 체포했으며 납치된 여고생 1명을 구출했다고 보도
- ※ 회수된 물품과 체포된 용의자, 구출된 여고생은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고 부언

○ 민주콩고, 軍人 살해 등 테러범에게 '사형' 선고

- 5.23 외신은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自國 군인을 칼로 살해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케냐 국적의 용의자 「살림 모하메드」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보도
- ※ 同人은 '96년부터 우간다·민주콩고에서 활동하며 민간인·군인 겨냥 각종 테러에 가담

예멘, 대통령궁 인근 광장 자살폭탄 테러

- '12.5.21 예멘 수도 사나市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6명이 사망하고 약 300명이 부상
- 同테러는 대통령궁 인근 알 사빈 광장에서 군인들이 독립 22주년 기념일 퍼레이드를 연습하던 중에 발생
 - 군인으로 위장한 테러범은 행진 연습을 하던 군인들 사이에서 자폭을 감행
 - 「모함메드 네세르 아메드」 국방장관이 광장에 도착하고 수분 뒤 폭발이 발생한 점을 미뤄, 테러범은 同인의 암살을 노린 것으로 추정
-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연계 단체 '안사르 알 샤리아'는 '미국에 대한 보복이고 지하드의 출발에 불과하다'며 同테러 배후를 자처
- 이번 테러는 '아랍의 봄'*으로 「알리 압둘라 살레」前 대통령이 축출('12.2)된 이후 발생한 최악의 테러로 평가
 - * '10.12 튀니지에서 촉발되어 아랍·중동·북아프리카로 확산된 反정부 시위 운동

<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

- (영문 / 별칭)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 예멘 알카에다
- (생성배경) '09.1 '예멘 알카에다'가 '사우디 알카에다'와 통합하여 아라비아반도와 중동內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
 - ※ 테러단체 지정 : UN('10.1), 미국('10.1), 캐나다('10.12), 호주('10.11), 사우디('13.12), UAE('15.11)
- (활동지역 / 연계세력)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 알카에다, 알샤바브
- (수법) 예멘 軍·警 대상 공격 및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프린터, 속옷, 신체內 은닉 등)을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 항공기 폭탄테러 등
 - ※ '19.12 미국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 총기 테러(사망 3명, 부상 8명) 배후 자처
- (특징) 反서방 글로벌 테러에 가장 적극적·공세적이며, 알카에다 지부 조직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평가